

소품: 의자 2인 · 책상 2

#0 의상: 교복

2016년, 같은 반인 윤서, 승우, 상현, 나영은 반에서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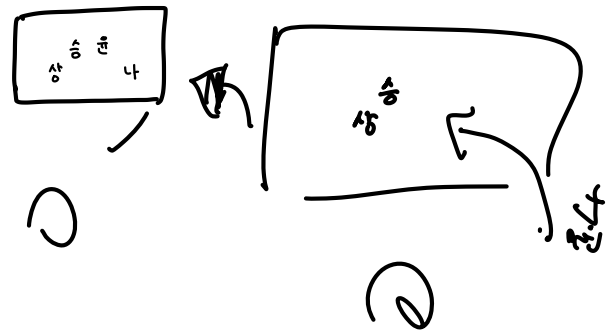
승우와 상현이 모여 앉아 자유롭게 얘기를 떠들다 대사를 시작한다.

상현 : 야 나 진짜 개예쁜 사람한테 번호 따임.

(상현이 승우에게 핸드폰을 보여준다.)

승우 : ? 너가? 구라치지마 진짜

(윤서와 나영이 들어온다.)



윤서 : 뭐야 나 너 번호 따 적 없는데?

상현 : 윤서, 나영 하이~

승우 : 앤 또 왜 이래 단체로 뭘 잘 못 먹었나

나영 : 야 윤서정도면 이쁘지~

상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승우 : 와 야 진짜 싫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건

윤서 : 어찌라고 iii

승우 : 애째래개ㅏ

나영 : 사랑싸움은 나가서 하세요~

승우 : 야 진짜 그건 좀 선 넘었어

윤서 : 야 진짜 뭐래 말넘심 진짜로..

전북:교복

상현 : 그래 애네가 무슨 사랑싸움이나 윤서가 훨씬 아까움

나영 : 맞긴하지~

승우 : 애네 진짜 이상해..

암전
하수위장

#1 (하수입장
하수퇴장)

조영
(Wh: 7
Vio: 7)

2016년 14살의 크리스마스, 상현은 윤서에게 고백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선물 상점을 방문한다. 상점 안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다.

상현 : 와 드디어 크리스마스다. 내가 손꼽아 기다려온 바로 크리스마스! 오늘에야말로 내가 정

말 좋아하는 윤서에게 고백하고 말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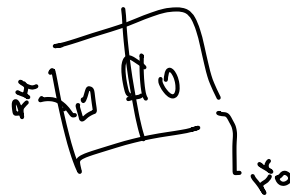
상현: ~~윤서에게~~ 멋진 착각
재현: 알바웃

(상현이 문을 열고 상점을 들어간다.)

left 조영만 생

Vio 끄기

(문에 달린 종이가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재현 : 어서오세요~

상현 : 혹시 여자친구한테 줄 선물 추천해주실 수 있으세요?

재현 : 아 네 여자친구 선물용으로는 향수가 잘 나가요.

상현 : 그럼 향수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재현 : 요즘 크리스마스 기간이라 향수 할인이 많아요. 여자친구 분 어떤 향 좋아하세요?

상현 : 어.. 잘 모르는데..

재현 : 그럼 향 추천해드릴까요?

상현 :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향수가 진열 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재훈 : 여성분들은 요즘 이 향수 많이 쓰세요. 오시는 분들마다 이걸로 추천 드리고 있어요.

(재훈이 상현에게 향수를 건네준다.)

상현 : 아 그럼 그걸로 주세요.

재훈 : 네, 여자친구분 드리는 거니까 선물 포장 해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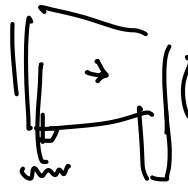
상현 : 아 네 감사합니다.

(상현이 선물을 손에 든 채로 문을 열고 상점을 나간다.)

종소리

(상점 앞에서)

[카톡] → '카톡' 알림소리 + 대사녹음



상현 : 윤서야 혹시 뭐해?

윤서 : 나 그냥 핸드폰하고 있어.

상현 : 혹시 이따 8시에 소원의 나무로 나와줄 수 있어? 나 줄 게 있는데..

윤서 : 아 미안 나 숙제가 좀 많아서 이제 공부 시작하려 했어. 다음에 줄 수 있어?

상현 : 아아.. 응 알았어. 숙제 열심히 해.

윤서 : 응

(상점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상현 : 아 일 한 번 더럽게 안 풀리네.. (pa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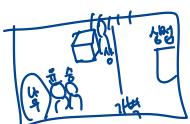
윤서, 승우

다음주에라도 주면 되겠지? 집이나 가자. 인생 진짜 이게 맞나.. (깡통을 찬다.) 아 나 진짜 고

페트병

백 완벽하게 할 수 있었는데... (소원의 나무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윤서한테 고백하려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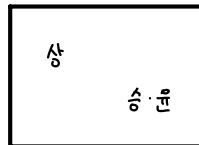
어? 저거 윤서 아니야? 공부해야 한다면서 왜 여기 있지? 옆에 켜 승우 아니야..?



(상현이 전봇대에 몸을 숨기고 윤서와 승우를 바라본다.)

(윤서와 승우는 소원의 나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승우 : 뭐야? 왜 불렀어?



윤서 : 어.. 그.. 줄 게 있어서

(선물을 승우에게 건넨다.)

승우 : 이게 뭐야?

윤서 : 그냥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지.

승우 : 너가 웬일이야 이런 걸 다 주고 ㅋㅋ 고마워 잘 쓸게. 역시 넌 내 짝친이야~

윤서 : (...)

승우 : 무슨 일 있어?

윤서 : 나 할 말 있어.

승우 : 뭔데?

윤서 : 나 너 좋아해

승우 : 응..?

윤서 : 왜? 넌 별로야?

승우 : 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진심이야?

윤서 : 당연하지..? 왜? 아닌 것 같아?

윤서: 제발
승우: 강우

승우 :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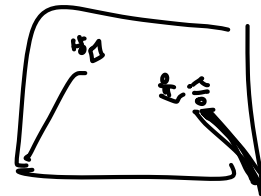
윤서 : (말을 가로채며) 그래 그럼 말고 어쩔 수 없네! 뭐 고백은 없던 일로 할게

승우 : 으응...?

윤서 : 나 먼저 간다! 안녕~」 윤 퇴장

승우 : 어..어..??

윤서가 떠나고 승우는 윤서가 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



상현은 상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

—」 승 우

상현 : 어 윤서 간다... 지금 설마 윤서가 승우한테 고백한거야...? 나한테는 그냥 친구 사이라더

니! 어떻게 전승우 너가 나한테 그래? 내가 얼마나 윤서를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그래 놓고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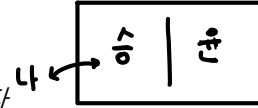
지어 찬거야? 전승우 넌 이제 나랑 끝이야. 두고 보라지」 내가 어떻게 복수할지. 지구 끝까지 쫓

아갈거야!」 전승우

#2

하수왕
#2 하수왕

의상 : 파자바
소품 : 가벽 · 핸드폰 · 의자 x2 · 팻말 (가벽에 부착)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승우와 윤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무대 가운데에 벽을 두고 왼쪽에 승우, 오른쪽에 윤서의 방을 만들어 각자의 독백을 만든다.

(승우의 독백)

승우 : 윤서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네.. 그냥 친구로밖에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래도 친구로 지내자 하고 끝났으니까 잘 지낼 수 있겠지..? 아.. 정말 어렵다 어려워..

무대 왼쪽 불이 꺼진다.

윤서 : 아악! 내가 왜 그랬지! 왜 말 같지도 않은 고백을 해서..! 으악 쪽팔려! 나 앞으로 승우
얼굴 어떻게 봐.. 아 머리 아파..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윤서야. 어떻게 이런 멘트로 고백을 하는
거야.. 아.. 머리 아파.. 진짜 미치겠네..

윤서의 핸드폰 알림소리가 들린다.

윤서

윤서 : 어? 웬 알림이지?

윤서

[카톡]

나영 : 윤서 모해??

윤서 : 야 나 지금 14년 인생 최대 흑역사 만들고 옴..

나영 : 헐? 뭔 일이야? 야 설마

윤서 : 어.. 나 차임..

나영 : 미친 거 아니야? 개가 뭔데 너를 차! 정신 나갔네. 나가도 제대로 나갔어. 너가 더 아까웠어! 개는 왜 너 같은 보석을 놓치는 거야? 이해 못 하겠네 진짜.

윤서 : ㅋㅋㅋㅋㅋㅋ아ㅠ 소꿉친구를 짝사랑하기란 역시 힘들구나..

나영 : 어휴 너도 참 힘들겠다. 하필 6년 지기를 좋아하게 돼서

윤서 : 그래도 뭐 다시 친구로 지내는 게 어디야

나영 : 그래. 차라리 다행이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네

윤서 : 그래 나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꼭 언젠간 반드시 고백에 성공하고 말거야!

나영 : 그래 한 번 더 파이팅이다, 내 친구!

윤서 : 다음 고백은 성공 가보자고~

나영 : 가보자고! ㅋㅋ

└─┘

입장 상관 X

의상 : 교복

#3 소품 : 개백미 창안 부작

다음 날, 윤서와 승우는 학교 복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언제 어제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윤서는 승우에게 그날 저녁 승우의 축구 연습을 돕기로 한다.

(승우와 윤서가 복도에서 마주친다.)

윤서 : 안녕!

안녕!

안녕!

승우 : 아.. 안녕

윤서 : 없던 일로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친하게 지내도 되지?

승우 : 아 으응 당연하지..!

윤서 : ㅋㅋㅋ 아 오늘 급식 뭐 나오지?

승우 : 오늘..? 아마 마늘 바게트랑 스파게티?

윤서 : 헐 야 미쳤다. 스파게티 먹고 싶었는데.

승우 : ㅋㅋㅋㅋㅋ 그렇게 맛있겠다. 이따 앞에서 봐. 급식실 같이 가자.

윤서 : 오키~ 아 너 이따 저녁에 뭐해?

승우 : 아마 축구 연습하지 않을까?

윤서 : 그럴 줄 알았다. 이따 보러 간다?

승우 : 아 맨날 와 무슨 공부 안 해?

윤서 : 야 우리 학교에서 공부는 너가 제일 안 하거든? 누가 누구한테 공부 타령이야.

승우 : 공부는 못 해도 축구를 잘하잖아~

윤서 : ㅋㅋㅋㅋ 진짜 어이없어 ㅋㅋㅋ 아무튼 이따 보러 간다? 맨날 연습하던데 맞지?

승우 : 응 그때 봐

윤서 : 오키



(저녁)

(윤서는 승우가 자주 연습하던 운동장으로 이동한다.)

(승우는 이미 축구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윤서 : 뭐야 너 벌써 연습하고 있었네?



승우 : 오늘따라 시간이 좀 남길래 먼저 좀 하고 있었지 뭐. 넌 뭐하다 이제 오냐?

윤서 : 공부하다 왔거든? 이거나 먹어.

(윤서가 승우에게 음료수를 건네준다.)

승우 : 우와 뭐야? 이거까진 예상 못 했는데 ㄱ ㄱ

윤서 : 오랜만에 돈 좀 썼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처음이자 마지막 음료수니까.

승우 : ㄱ ㄱ ㄱ ㄱ ㄱ 고마워 잘 마실게

(승우가 윤서가 준 음료수를 마신다. 윤서는 자리에 앉아 승우와 얘기를 한다.)

윤서 : 연습은 잘 돼가?

승우 : 잘 모르겠어. 아무리 해도 늘지를 않네. 요즘 따라 드리블도 잘 안 되고 진짜 걱정이다.

축구선수란거 할 수 있는 거 맞겠지..?

윤서 : 에이 못할 게 뭐가 있어. 분명 잘할거야. ~~아무리 해도~~ 좀 못할 때도 있는거지 뭐. 너가

축구선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되고 싶어 했는데, 당연히 해야지! ~~아무리 해도~~ 연습이나 더 해 맥빠진

소리 하지 말고.

승우 : 그래야겠지? 고마워...!」 운 없
3위 2번

(승우는 계속하여 축구를 연습하고 윤서는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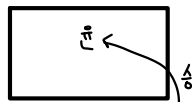
#4 소품 : 가벽내 포스터

시간이 흘러 2년 뒤인 2018년 8월, 3학년이 된 윤서와 승우는 복도에서 축구부 추가모집 공고를 보게 된다.

(윤서와 승우가 복도로 들어온다.)

연습장에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윤서 : 헐 야 이리로 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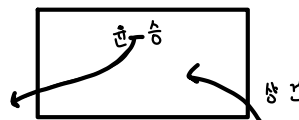
승우 : 어? 이게 뭐야. 추가모집공고?

윤서 : 야 이거 완전 너한테 딱이네. 너가 얼마나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냐! 지금까지 축구부

공식 모집은 항상 아쉽게 떨어졌어도 추가모집 정도야 당연히 할 수 있지!

승우 : 응. 나 이번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꼭 붙고 말 거야.

(상현과 건하가 복도로 걸어 들어온다.)



상현 : 우와~ 추가모집공고? 아 맞다 재훈이 전학 갔지~ 재훈이 대타 뽑는 공곤가 보네. 그런데

웬만한 실력으로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축구부가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말이야 ㅋㅋ

건하 : 맞지~ 우리 학교 축구부 누구 아무나 되나. 누구처럼 백날 천날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아이는 절대 못 붙을걸? ㅋㅋ

승우 : 아 김상현,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상현 : 어? 이게 누구야 승우 아니야? 어머 너가 있는지 몰랐네. ㅋㅋ 근데 혹시 찢렸어? 너한

테 한 말 아니었는데~

건하 : 뭐야 너무 작아서 안 보임. 어딴냐? ㅋㅋㅋㅋ

상현 : 아 진짜 개웃김 ㅋㅋㅋㅋㅋㅋ

윤서 : 아 너희 왜 애한테 시비야? 승우야 가자.

(윤서가 승우의 손을 잡아끌고 복도를 나간다.) ^{하수퇴장} 암전

(상현 : 비아냥거리며 상수퇴장
건하 :)

#5

~~윤서는 상현에게 상처받은 승우를 돕기 위해 나영에게 위로할 방법을 묻고 둘은 밤마다 만나 연
습을 함께한다.~~

윤서와 나영이 카톡으로 연락한다. 무대에는 윤서만 있다.

[카톡]

윤서 : 나영.. 나 고민이 있어ㅜㅜ

나영 : 무슨 일이야??

윤서 : 오늘 학교에서 김상현이 또 승우한테 앞에서 욕하고 꼬쳤는데 2년 동안 그러니까 승우가

많이 지쳤나봐. 많이 우울해보여.. 어떻게 해야 승우를 도울 수 있을까..?

나영 : 아 진짜 김상현 개는 왜 그런 대니 맨날 이유도 없이 사람 괴롭히고! 음.. 너가 승우 축구 연습을 좀 도와주는 건 어때?

윤서 : 축구연습을?

나영 : 응, 원래도 너 개랑 자주 만나서 개 축구 하는 거 구경했잖아. 이젠 네가 같이 뛰어주는 거지.

윤서 : 그런데 난 축구 진짜 못 하는데.. 너도 알잖아 나 구기 종목 진짜 못 하는 거..

나영 : 당연히 알지. 이 언니가 도와줄게. 나만 믿어! 앞으로 점심시간마다 특별훈련 시켜 줄 거니까

윤서 : 진짜 너밖에 없어 ㅜㅜ 항상 고마워 진짜

나영 :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니까 꼭 잘 돼야 해!

윤서 : 응!

윤서 : 진짜 나영이는 나한테 너무 고마운 존재야. 아 이럴 때가 아니다 얼른 승우한테 연락해야

지!  영현

승우

[전화]

전화 후

(윤서가 승우에게 전화를 걸고 축구 연습을 하던 승우는 약 4초 후 전화를 받는다.)

승우 : 대사

윤서 : 야 뭐해?

윤서 : 커튼에서
대사

승우 : 축구 중

윤서 : 나도 같이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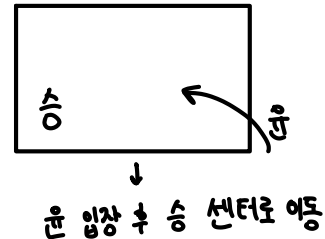
승우 : 너가? 너 축구 엄청 못 하잖아.

윤서 : 나 완전 잘 하거든~

승우 : 뭐래 진짜. 나올거야?

윤서 : 응 지금 나갈게

(잠시 후, 승우가 연습하고 있던 운동장에 윤서가 등장한다.)



윤서 : 윤서 등장~

승우 : 오 뭐야 진짜 왔네?

윤서 : 당연하지~ 뭐부터 하면 돼?

승우 : 대충 너 실력을 알아야 하니까 한 번 저 골대에 슛 한 번 해봐

윤 제스처 이후
공 들고 오른쪽으로 이동

윤서가 공을 차려 하다 넘어지게 된다.

윤서 : 아야!

승우 : 야 괜찮아?

윤서 : 헐 야 피 나. 이거 어떡해?

승우 : 야 조심 좀 하지. 무슨 애가 공을 차다 넘어져서 손이 까져.. 기다려 봐.

승우가 가방에서 반창고를 꺼내 윤서의 손에 붙여 준다.

승우 : 넌 그냥 오늘 앉아 있어. 도와주겠다고 왔나 했더니 일을 더 만들어 무슨

윤 : 화장실에서.

(그날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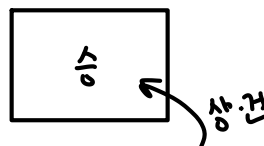
(윤서와 승우는 연습이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승우는 연습시간에 있던 일을 생각한다.)

(불끄고 스포트라이트)

승우 : 아까 윤서 다친 거 많이 아프려나? 어떻게 하면 공을 차다 손을 다치냐고 ㅋㅋㅋ 아 귀엽네. 응? 내가 방금 뭐라 한거지..? 귀엽다고..? 나 설마 고윤서 좋아해..? 아니야 이거 내가 잘 못 말한거지 그치. 물론이지 내가 잘 못 말했어. 응.

#6

승우는 윤서와 축구부 추가모집을 위한 연습을 계속한다. 추가모집 오디션이 있기 2주일 전 점심시간, 상현이 승우에게 음료수를 건네준다.



(축구 연습을 하고 있는 승우에게 상현과 건하가 다가온다.)

상현 : 승우야~

승우 : 뭐야?

상현 : 뭐야~ 왜 이렇게 단호해~ 무섭다 무서워 ㅏ

승우 : 용건만 말해.

상현 : 에이 용건이라니 서운하다~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온 친구한테 ㅏㅏ

건하 : 너 점심도 안 먹고 연습한다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승우 : 귀찮게 할 거면 꺼져. 나 연습해야 돼.

상현 : 아 왜 이렇게 뽀뽀하게 해. 이거나 마셔.

(상현이 승우에게 음료수를 건네준다.)

건하 : 곧 오디션이잖아~ 친구로서 응원해주려고 주는 거지. 우리 팀 다 이거 마시고 기력 충전
해. 맛있을 거야. 빨리 먹어봐.

승우 : 어.. 고마워.

(음료를 살펴보던 승우가 이내 음료수를 마신다.)

상현 : 잘 먹네? 그럼 우린 갈게 안녕~

건하 : 안녕~

(상현, 건하가 사라진다.)

~~무대의 불이 꺼진다. 약 5초에서 10초 뒤 점심시간이 예비중이 올리고 불이 켜진다.~~

K17me22

(승우 : 일상적 대화하여 일상
윤서 :

승우 : 어..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윤서 : 무슨 일 있어?

승우 : 아까 상현이 음료수를 줬는데 그걸 마신 이후로 배가 계속 아파..

윤서 : 설마 김상현이 거기에 뭐 탄거 아니야?

승우 : 그래도 옛 정이 있지 설마 그럴까..?

윤서 : 개라면 그러고도 남아. 2주 남았는데 몸 괜찮겠어? 너 지금 엄청 아파보여..

승우 : 어쩔 수 없지만 오늘 훈련은 쉬어야지 어떡해.. 좀 보건실 가서 누워있어야겠다.

윤서 : 어차피 이거 예비종이니깐 5분 남았어.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이동 후
안전

윤·나 : 하수입장

승 : 상수입장

#7
원 밖기 <오 밖기

상현의 음료수를 먹고 몸이 안 좋아진 승우는 일주일 간 연습을 못하게 된다. 몸이 아파 점심시간에 반에서 밖을 바라보다 축구를 하고 있는 나영과 윤서를 발견한다.

승우 : 어? 저거 윤서 아니야? 재가 왜 축구를 하지? 운동이라면 그렇게 싫어하는 애가 요즘 따라 왜 저렇게 운동을 하는거지..? 그런데 설마 혹시 재 내 축구 연습 때문에 지금 나영랑 연습하고 있는 건가? 나 때문에? 정말? 아직도 날 좋아하는 건가?

안전

윤4 | 승

vio
wli
guc
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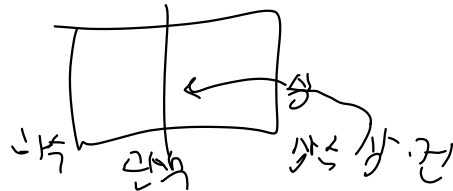
#8

건우는
조영

일주일일이 지나자마자 다시 운동을 재개하는 승우에게 상현과 건하가 더욱 직접적인 복수를 한다.

(축구장으로 이동하려는 승우를 상현과 건하가 붙잡는다.)

승우 : 이거 봐. 뭐 하는거야?



건하 : 야 잠깐 얘기하는 것도 안 되냐? 친구데?

승우 : 친구? 우리가? 너 나한테 그런 음료수를 주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그거 때문에 일주일동안 운동을 쉬어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 걸 알면서!!

상현 : 뭐야 일주일이나 쉬었어? 운동선수가 운동을 일주일씩이나 빼먹어서 쓰나~ 아파도 해야 축구선수지. 넌 도대체 그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할래?

승우 : 뭐라고?

(승우가 상현을 밀어 넘어뜨린다.)

상현 : 너.. 방금 ~~나한테 뭐 했다...?~~
나 쳤냐..?

승우 : 그.. 그..냥 톡 친건데 너가 밀린거거든? 넘어진 건 넌데 왜 나를 탓해..!

상현 : 이게 진짜 미쳤나

(상현이 승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을 한다.)

상현 : 너가 / 나랑 / 동급 / 같아? / 놀아줬더니 / 까불고 있어

(~~상현이 승우의 어깨를 말쳐 넘어뜨린다.~~)

오기다

상현 : 너 이제 내 앞에 보이면 진짜 죽는다. 건하야 가자.

건하 : ㅋㅋㅋㅋㅋㅋ 그래

(상현과 건하가 무대 밖으로 나간다.)

짧은 장면

#9

시간이 흘러 오디션 당일 아침, 건하는 승우의 축구공을 훔치고 자취를 감춘다.

운동장에 승우의 축구가방이 놓여있다.

건하 : 승우 가방이 어디 있지? 어 저건가?

(승우의 가방을 향해 달린다.)

드디어 찾았다 찾았어. 이걸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 두면 쓰나~ 자고로 축구부라면 개인 물품 정도는 자기가 잘 챙겨서 다녀야지.

(가방을 뒤적거린다.)

이야 축구공 여겼네. 축구선수라는 놈이 뭐 이렇게 구린 공을 들고 다니냐? 웃겨 죽겠다 진짜

ㅋㅋㅋㅋㅋㅋ 자 이 공은 이 몸이 잘 보관하고 있을게~ 안녕~

(축구공을 들고 퇴장한다.)

장면

#10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오디션을 볼 시간이 되어 승우는 오디션을 볼 준비를 하고 윤서는 승우를 응원해주다 승우의 공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승·현 등장 후
조명

윤서 : 야 전승우 잘할 수 있지? 나 너 믿어~

승우 : 당연하지~ 나 전승우야. 이제 축구공만 챙기면 돼.

(승우가 축구공이 든 가방을 챙긴다.)

승우 : 어? 가방이 왜 가볍지?

윤서 : 너 설마 공 놓고 온 거 아니지..?

승우 : 아니야 나 분명 챙겼어.. (가방을 연다) 야.. 진짜 없어..

윤서 : 진짜 챙긴 거 맞아?

승우 : 당연하지..!! 오늘 학교 가기 전에도 확인했다고..!

(승우가 가방을 들며 말한다.)

윤서 : 그럼 설마 또 김상현이나 박건하가 한 거 아니야?

승우 :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내가 자기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윤서 : 기다려 봐. 일단 내가 어떻게든 다른 공을 찾아볼게. ㄴ 망쎄

#11

윤서는 승우에게 줄 축구공을 찾기 위해 나영에게 간다.

장소
~~체육관~~으로 가 운동을 하던 나영을 발견한 윤서는 나영에게 축구공을 빌려달라 부탁한다.

나영 입장 후
3명, 윤서 뛰어들어오기

윤서 : 나영아 !! 너 지금 축구공 있어?

나영 : 응? 축구공? 당연히 있지. 이 몸이 요즘 너 도와주다가 또 축구에 빠져버렸지 뭐야~ 축구 연습하고 있었지 뭐. 아 오늘 축구부 오디션만 아니면 내가 딱 거기서 하는 건데 아쉽게 됐어~

윤서 : 아니 그런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축구공 빌려줄 수 있어?

나영 : 응? 왜? 지금 필요할 일이 있나? 개 지금 오디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윤서 : 맞아, 원래 그게 맞는데, 김상현이랑 박건하가 승우 축구공을 터뜨린 것 같아.

나영 : 뭐? 와 진짜 다방면으로 미친놈들 개네 어떡하지?

윤서 : 일단 축구공부터 빨리 빌려줄 수 있어?

나영 : 당연하지 이거 가져가. 이따 끝나고 봐!

윤서 : 응! 항상 정말 고마워.

나영 : 별말씀을~ 빨리 뛰어 늦겠다!

★ 암전 2초 사이에

준 : 오→된 퇴장 후 입장

승·준 : 나 (나영에게 축구공을 받고 윤서는 승우를 찾으러 운동장으로 뛰어간다.)
=장후 오 입장

(윤서는 운동장에 있는 승우와 준호에게 달려간다.)

나 : 뭘 퇴장

★ 승·준 등장 후 조명

준호 : 너 시험 안 볼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서 있어? 공은?

승우 : 아.. 그게..

★ 운동장

윤서 : 공...!! 갖고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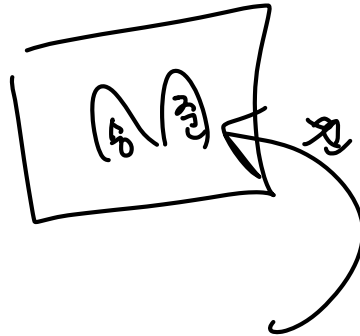
준호 : 넌 누구니?

윤서 : 지금 시험 보는 승우의 친구입니다...! 늦어서 죄송하지만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 : 그래, 실격 처리 하려 하긴 했는데 이렇게 친구가 열심히 뛰어오는 데 별 수 있나. 한 번 해봐.

(승우가 축구 시연을 한다.)

★ 암전 X



★ 운동장 2등과 3등 찾기
(2등도 3등도 아니니까)

#12

승우가 오디션을 하고 있던 것을 본 상현과 건하가 놀란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윤서, 승우는 상현, 건하에게 화를 내고 준호는 이 둘을 팀에서 퇴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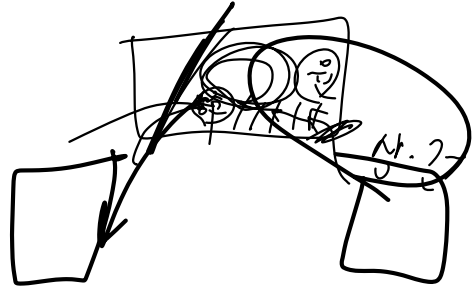
상현 : 어 뭐야. 재 왜 오디션 보고 있어?

건하 : 어? 내가 분명 저 공 훔쳤었는데..?

윤서 : 야 너네 뭐라고?

승·준·희·상

건하 : 어? 뭐가?



윤서 : 똑바로 다시 말해봐.

상현 : 아이고 무서워라ㅠ 뭐 어찌라고.

윤서 : 너네 진짜 미쳤어? 해도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해? 화나는

게 있으면 말로 하던가. 2년 동안 친구 꿈을 밟아도 정도껏 밟아야지. 도대체 왜 애한테 그러는

거야? 승우한테 화난 이유가 도대체 뭔데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상현 : (조용한 목소리로) 짜증났어..

윤서 : 뭐?

상현 : 짜증났다고! 너랑 개랑 친구라고 하면서 맨날 붙어있고! 정작 진짜 널 좋아하는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고백도 차였으면서 다시 친구로 지내는 너희가 너무 짜증났다고!

윤서 :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너희한테 이득 될 게 뭐라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려면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널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전혀. 난 지금 겨우 그런 일로 2년 동안 내 친구를 괴롭혔단 사실이 너무 어이

가 없고 화가 나. 너 때문에 승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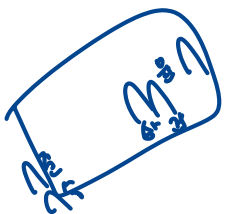
최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승·준·희·상
하수왕

(오디션이 끝난 승우와 준호가 이들에게 다가온다.)

준호 : 무슨 일이니?

윤서 : 선생님, 저희 학교 축구부원인 상현과 건하가 방금 시험을 본 제 친구 승우가 축구부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고 오디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공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승우가 시험을 보지 못 할 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요.

준호 : 그게 정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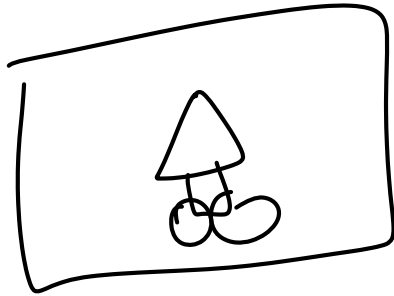
상현 : 아... 코치님 그게 아니라..

준호 : 내가 너네 그렇게 가르쳤어? 너네 같은 애들은 축구를 할 자격도 없다. 너넨 퇴출이야!

건하 : 코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잘 할게요..

준호 : 너넨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양전**

하수퇴장



#13
핑크·보라조명(리활한 분위기)
가사없는 캐롤 먼치 캐서

(시간이 흐르고, 오디션 결과 발표날인 크리스마스가 되어 윤서와 승우는 소원의 나무에서 만난

조명·음·향·색·촉각
다.)

윤서 : 우리 같이 온건 2년 만이네?

승우 : ㅋㅋㅋㅋ 그러게.

윤서 : 우리가 벌써 예비 고1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승우 : 진짜.. 윤서야 나 할 말 있어.

윤서 : 응?

승우 : 2년 전 그때 너한테 고백을 받고, 생각이 꽤 많아졌어. 한 번도 너를 이성으로 생각한 적 없고, 그저 친구였던 너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너를 보면 심장이 떨리고 설렘어. 너만 생각 하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 찬 입장에서 말하긴 그렇지만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윤서 : 진심이야?

승우 : 응.

윤서 : ㅋㅋㅋㅋㅋ 그래 좋아.

승우 : 어 정말...??

윤서 : 우웅.

(승우의 핸드폰 알림이 울린다.)

음양

[문자]

- 위 학생은 축구부 추가 모집 오디션에 합격하셨습니다. 12/31일 이내로 체육안전부에 돌려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나레이션

(승우가 놀라 소리를 지른다.)

승우 : 나 지금 합격한거야? 이거 꿈 아니지? 진짜지?

윤서 : 아ㅏㅏㅏ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승우 : 나 붙었어? 진짜로??

윤서 : 어 붙었어!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대단해ㅏ

승우 : 나 이제 진짜 더 더 더 열심히 축구할거야. 꼭 이번 대회 이길게!!

윤서 : 응! 파이팅! **양현**

무대의 불이 꺼지고 빔 프로젝터가 내려온다. 빔 프로젝터 속에는 포르투갈과 우리나라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14에서 필요한 소품들이 모두 준비가 되면 불이 켜진다.



#14 소품 : 의자재 음향 : 해설영상
의상 : 학교교끼X3 붉은악아너리띠 조명 원근
(시간이 또 흘러 2022년, 연인인 윤서와 승우는 함께 윤서의 집에서 카타르월드컵을 본다.)

윤서 : 나 진짜 너무 떨려 진짜 재밌겠다.

승우 : 그러게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겠지?

윤서 : 저번에 조별리그에서 **안았나?** 이번엔 그것보단 잘해야 할텐데.. n
달라지지

승우 : 그러게.. 어어 경기 시작한다.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 대한민국 경기 영상이 흘러나온다.

(윤서, 승우가 영상을 보며 리액션을 한다. - 자유)

대한민국이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나온다.

승우 : 헐 방금 골 넣었어!!

윤서 : 아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멋있다ㅜㅜ 너무 대단하다 진짜

승우 : 나도 꼭 저런 축구선수가 될거야. 응원해줄거지?

윤서 : 당연하지!

END